

증권사, 지점 통폐합 가속화... '큰 손 밀집' 강남도 들쭉

지점 4년새 220여 개 줄어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영향
NH투자·한투 등 통합 운영
법인 많은 판교로 눈 돌려

국내 증권사들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영업지역으로 꼽히는 강남 지역에서도 통폐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계 증권사들의 국내지점수는 올 1분기 기준 823곳이다. 앞선 지난해말 기준으로도 824개였으나 1분기만에 한 곳이 감소했다.

증권사의 지점 축소는 이미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6년말까지만 하더라도 1070개에 이르렀지만, 이후 ▲2017년 1013개 ▲2018년 968개 ▲2019년 899개 ▲2020년 849개 등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한 증권사 관계



NH투자증권 판교 Biz Plus 금융센터 전경.

/NH투자증권

자는 "비대면 금융 활성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비중이 커지면서, 지점의 통폐합을 통한 한 지점내에서도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율화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이러한 지점 통폐합 현상은 증권사들의 영업 요충지로 꼽혀온 강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달 중순부터 교대역WM센터와 강남대로WM센터를 통

합한 강남금융센터를 새롭게 선보인다. 두 센터는 오는 12일까지 영업한 뒤 통합지점인 강남역 근처 새로운 영업점을 오는 16일 오픈한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지난달에는 신사WM센터를 압구정WM센터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강남 상권 내에서 증권사의 지점 통폐합은 타증권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3월 압구정PB센터와 청담영업소의 통합을 통한 확장 개점을 진행했다. 더불어 올 초부터 강남대로2PB센터와 강남대로1PB센터의 통합을 결정했다. 신영증권에서도 지난 3월 반포지점과 압구정지점을 대치센터로 통합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통폐합 움직임과는 달리 판교 지역에서는 증권사들이 점포 신규 진출 및 영업력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NH투자증권은 최근 판교WM센터를 '판교 Biz Plus 금융센터'로 새로

게 오픈했다. 해당 점포는 개인고객 대상 자산관리 어드바이저 서비스, 기업 대상 자산운용, 자금조달 컨설팅, 연금제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특히 WM 직원뿐 아니라 법인RM(전담역)·연금 컨설팅RM이 점포에 상주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올 초 본사 연금부문을 판교로 이전하고, 영&리치를 위한 자산운용특화점포 투자센터 판교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초고액자산가, 일반 고객, 법인 고객 등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영업점포 판교금융센터를 출범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신흥 법인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미 몇 년전부터 판교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한 영업력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어닝쇼크 기술주 담자”... 서학개미, 알파벳·스냅 ‘줍줍’

해외주식 Click

저가매수 기회 삼고 순매수
알파벳 3265만달러 사들여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투자자)들이 최근 낙폭이 과대했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순매수했다. 금리 인상으로 하락 폭이 컸던 기술주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7월25~7월31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10종목 중 4종목이 기술주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폭락했던 스냅이 2위에 자리했다. 순매수 규모는 2817만달러다. 지난 22일 스냅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39.2%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애플과 메타가 각각 1830만달러, 752만달러로 4위와 8위에 자리했다.

국내 투자자 순매수 1위 종목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으로 3265만달러의 자금이 몰렸다.

지난 26일 알파벳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96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699억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다만 구글 광고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순위	종목명	순매수결제
1	ALPHABET INC CL A	3265만
2	SNAP INC CL A	2817만
3	VANGUARD SP 500 ETF SPLR 39326002188 US9229084135	1961만
4	APPLE INC	1830만
5	PROETF ULTRASHORT BLOOMBERG NATURAL GAS	1499만
6	PROSHARES ULTRA VIX SHORT TERM FUTURES ETF	1048만
7	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	831만
8	META PLATFORMS INC CL A	752만
9	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	695만
10	ISHARES CORE SP 500 ETF	684만

7월25~7월31일.

/한국예탁결제원

관련 실적이 시장의 우려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아 서학개미들이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폭락했던 스냅이 2위에 자리했다. 순매수 규모는 2817만달러다. 지난 22일 스냅은 부진한 실적 발표로 주가가 39.2% 하락했다. 서학개미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애플과 메타가 각각 1830만달러, 752만달러로 4위와 8위에 자리했다.

더불어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주 상

장지수펀드(ETF)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밴가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ETF(VOO·VANGUARD S&P 500 ETF)는 1961만달러로 3위를 기록했다. 제이피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JEPI·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와 아이셰어즈 코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 500 ETF(IVV·ISHARES CORE S&P500 ETF)는 순매수 상위 9,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각각 695만달러, 684만달러가 몰렸다.

또한 하락시 수익을 얻는 ETF에

대한 투자도 이어졌다. 블룸버그 천연 가스 서브인덱스의 일간수익률을 역으로 2배 추종하는 프로ETF 울트라 숏 블룸버그스 네츄럴 가스(KOLD·PROETFULTRASHORTBLOOMBERG NATURAL GAS)에 1499만달러가 몰려 5위를 기록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을 3배로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배어 3X ETF(SOXS)에는 831만달러 순매수세가 나타났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는 엔비디아, AMD, 퀄컴, 인텔 등 미국 반도체회사 16종목이 포함되어 있어 서학개미들은 반도체주의 추가적인 하락을 점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변동성지수(VIX)를 1.5배 추종하는 ETF 프로셰어즈 울트라 VIX 숏 텀 퓨처스(UVXY·ProShares Ultra VIX Short Term Futures ETF)가 순매수 상위 6위를 기록했다. VIX 지수는 증시 지수와 반대로 움직여 공포지수로 불린다. 순매수 금액은 1048만달러다.

/원관희 기자 wkh@

두나무, 강연·전시 등 UDC 부대행사 운영

두나무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pbid Developer Conference, UDC) 2022' 부대행사로 특별 프로그램 4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블록체인 대중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된 특별 프로그램은 사전 프로그램 2종(무료강좌, 방구석 토크)과 현장 프로그램 2종(현장전시, NFT갤러리)으로 구성됐다.

오는 17일 진행되는 'UDC 2022 무료강좌'는 최신 블록체인 트렌드를 살펴보는 토크 콘서트다. UDC 2022 세션 키워드인 NFT, 메타버스, 웹 3.0 등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으로 뇌과학자이자 과학크리에이터인 장동선 박사와 크립토 유튜버 '알고란'의 고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한다.

무료강좌는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에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2일까지 UDC 2022 공식 홈페이지 내 '특별프로그램'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d·camp(디캠프)와 함께하는 방구석 토크'는 예비 개발자를 위한 공감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디캠프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은행권 청년창업재단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베이스캠프로, 청년세대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방구석 토크 멘토로는 오재훈 람다 256 블록체인 연구소 최고기술책임자(CTO), 문성식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개발팀장, 양주찬 두나무 레벨스 NFT 마켓 플레이스 개발팀장이 참여해 실무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일반 대중도 쉽고 재밌게 블록체인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UDC 2022 특별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며 "UDC 2022가 블록체인 업계 전문가부터 개발자 꿈나무, 일반 대중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분양

16개동, 2개 단지... 총 1349가구

한화건설이 대전광역시 서구 일원에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의 분양을 시작한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16개동, 2개 단지, 총 1349가구 규모다. 전용 84㎡ 단면적으로 1단지는 A부터 J타입까지 659가구며, 2단지는 A부터 L타입까지 총 69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교통,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둔산동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배재로가 단지 앞에 위치하고, 도안신도시와 서대전으로 갈 수 있는 계

백로도 가깝다. 대전서남부터미널과 KTX서대전역도 차량 10분 거리다.

단지에서 대청병원, 도마2동행정복지센터, 도마동우체국,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이 가깝고,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의 대형 쇼핑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단지 옆에는 여의도공원의 17배 면적(약 400만㎡)에 달하는 '월평근린공원'이 개발될 예정이다.

단지 분양 일정은 오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해당지역) ▲10일 1순위(기타지역) ▲11일 2순위 청약 실시한다. 18일에는 당첨자를 발표하고, 정당계약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조감도.

/한화건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전체 물량의 25%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재호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포레나만의 프리미엄과 상품성이 더해져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